

# 사찰운영위 구성 '거북이 걸음'

## 스님·신도들 인식부족... 홍보·교육 선행돼야

지난 5월말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 주지 법통스님과 삼직스님, 신도회장 이병춘씨(도교육위원) 등 13명의 운영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사찰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5월말까지의 도리사 수입·지출을 점검하고 법당보수, 윤달불사, 유아원 개축, 양로원 개원 문제 등 사찰의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후 첫 모임인 이날, 스님들과 신도회 간부 등은 현실타회하게 사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병춘씨는 "사찰 경사비를 이겨 법당보수 등 불사에 주력키로 했다"며 사찰 경영에 참여하게 됨을 흐뭇해 했다.

이처럼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의 조계종 사찰운영위원회가 아직 전체 사찰의 20%에 불과한 총 3백60개 사찰에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월10일 현재).

조계종 종원 제10조에 의거 지난 4월25일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스님들 및 신도들의 사찰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스님들이 사찰운영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거나 실시에 대해 개입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26일 공포된 사찰운영위원회법에는 시행 6개월(4월25일)까지 구성해 총무원에 보고토록 했다. 구성할 수 없는 곳은 합리적 사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금산사 송광사 등 큰 절에

서조차 이렇다 할 사유없이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찰운영위원회법상 신도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신도회 구성이 미뤄지는 현실도 사찰운영위원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총무원은 주지 인사과과제 반영, 다양한 행정동제 방안 마련

등 강력한 실행의지를 천명하고는 있으나 워낙 구성안된 곳이 대다수라 임무를 못내고 있다.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상반기 중무계획 중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안을 위한 중요 중무정책으로 발표한 '사찰운영위원회'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철시키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발주하는 행정지침이 시급하다. (이경숙 기자)

## 도시사찰 등록세 비과세 전환

### 내달중 국무회의 상정...교계 "큰이익 없다"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도시에 한해 부과되던 사찰 등록세가 비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수원 안양 등 수도권 14개 시의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해오던 등록세를 비과세로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7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찰 인숙, 토지 매입 등과 관련한 등록세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의 경우 1% 미만이므로 알려져 교계는 내무부가 주장하는 민원에 따

른 타지방과의 과세평등원칙보다는 6·27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선거용 선심성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등국학원 승려 이사 조계종 추천권 강화

조계종은 지난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사정원 13인 중 9인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승려로 하는 등 정관을 개정, 승려이사 및 감사에 대한 추천기관을 조계종의 공식기구로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7월9일로 임기가 만료



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4인(현근 정우 지하 명훈)과 승가학원에서 추천한 원산(조계종 교육원장) 동광(도선사 주지) 도호(소림사 주지)스님과 종립학교관리위에서 추천한 지홍(신용사 주지) 광우(비구니 회장) 무상(봉은사 주지)스님 등 10인을 이사회로 복수 추천했다.

## "범어사앞 아파트 시대착오 발상"

### 정관·덕명스님등 대책위 구성...건립철회 여론 확산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건립 규탄 및 저지대회가 지난 6일에 이어 21일 오후 2시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1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건립반대 여론을 폭넓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민자단 불교신도회장인 광정출의원과 김진재의원은 "범어사와의 합치없는 관할구획의 건립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지대회에 이어 공사현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정관 덕명 대정스님이 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불법통해 가치관 재정립" 신도협, 윤리·도덕성회복 기원법회 봉행

한국의 불교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김용직)는 지난 17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및 윤리·도덕성회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복원스님(지지사 주지), 흥과 관음종총무원장, 대운 원효총무원장, 청봉 열불종총무원장, 광대 법화종총무원장을 비롯 스님 30명과 승사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도단체협의회는 도덕성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5개 지킴이 △6바리말 생활화 △효도하기 △더불어 살기 △주인의식 갖기 등 5개항을 실천목표로 채택했다.

## 대통령사과·책임자 문책 촉구

### 조계종, 6·6 교권 유린특위 구성...정부와 대화 모색

조계종 총무원이 6·6교권유린과 관련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측과의 대화모색에 나섰다.

총무원은 지난 20일 법타(총무원장) 시현(문화사회부장)스님을 상임위원으로, 각부 부장 및 국장을 위원으로 한 교권유린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번에 구성된 대책위는 15일 열렸던 시국법회때 월주스님이 밝혔던 입장과 원칙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위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이 공식적 사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계속 요구하되 종교와 정부간의 지속적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강경 발언도가 아닌 정부와의 공식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총회는 21일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권력의 폭압과 이를 비호한 일부언론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사과와 책임자문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제가 납득할만한 선에서 해결될 때까지 종교적 정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승가대 발전방향 조계종 세미나서 모색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7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해인사 흥재실에서 '지방승가대학 교육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승가대학이 의무교육과 장인 기본교육기관으로 정립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5일 법성스님(교육원 역경위원장)의 '승려 기본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6일 무관스님(전 해인사 강주지) '지방승가대학 교육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호국영령 추모행사 잇달아

군불교진흥회·법화경불교대동 기원법회

광복 50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와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21일 오후 7시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광복 50주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군법사 30여명과 군불자, 재가불자들이 모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주막밥 시식회도 함께 열려 6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갖기도 했다.

법화경불교대학(회장 공덕스님)도 같은 날 오후 1시 대전 국립묘지에서 부산, 대구, 포항 등 영남지방 법화경대학 학생 및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위령제'를 봉행했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혜스님)도 23일 오전 11시 금오산 큰주사에서 '호국영령추모 및 부산아시아 게임 원만성취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

전북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군산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은 7월2일 전주교육대학 실내체육관에서 '95 한마당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전북지역불교대학 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배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체육활동과 흥겨운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 광주불방 낙도청소년 백일장

불교광주지방승은 지난 16일 전남 완도 소안국민학교에서 광복50주년기념 낙도청소년초창백일장을 개최했다.

소년도 보경도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8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초등부 '동시' 중등부 '시' 금상 문지후(소안중1), '산문' 금상은 허혜란양(소안중3)이 차지했다.

## 대통령 75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창립 75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지선스님(백암사 주지) 등 교계 중진스님 및 청년회 회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총남지구 유석근회장과 김철현 사무국장이 제1차 불행대회에 대한 표창패를 수상했다.

사랑방전환 사단법인 인가

교계 최초 노인상담전화 사랑방전화(회장 로반스님)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

60세이상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 결성된 사랑방전화는 사단법인 인가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 통도사 옥련암 '큰빛의 집' 낙성

통도사 옥련암 '큰빛의 집' 부처님 점안식 및 법당 낙성식이 지난 22일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낙성식을 가진 '큰빛의 집'(대적공전)에는 비로자나불과 1천2백50위의 아라한이 봉안됐다.

## 부산 소림사 대웅전 착공식

부산시 동구 소림사(주지 정일) 대웅전 착공식이 지난 20일 정관(범어사 주지), 해인(제주 약전사 주지)스님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신록 대웅전은 대지 6백평, 연면적 1천1백60평,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종교시설과 각종 전시시설, 근린 생활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도, 연료비가 적게들어 경제적인 귀뚜라미보일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 3리 792

## 귀뚜라미 비닐하우스용 보일러가 중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양 어 장**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황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흙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를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바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됩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귀뚜라미 황형보일러

보일러 국내 1호기로서 최상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황형구조로 절연력이 높고 낮은 하우스 실내에 적합합니다.

귀뚜라미보일러

보일러는 비닐하우스 높이가 낮고곳에 설치기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료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